

조선산업



그리스 선주의 중국 조선소로 VL탱커 4척 발주

산업분석

2025. 10. 17

treaboat@treaboat.com

산업 전망

다이나콤, 형리 조선에 VL탱커 4척 발주

그리스의 유력 선주사 다이나콤은 중국 형리 조선소에 306K급 VL탱커 4척을 발주했다. 계약 선가는 1.16~1.18억 달러로 시장 가격 1.26억 달러에서 5% 이상 낮아진 수준이다. 형리 조선은 이번 수주계약을 포함해 VL탱커 수주잔고는 19척으로 늘게 되며 대련조선, 한화오션에 이어 수주잔고 순위는 3위로 높아진다. STX대련을 전신으로 하는 형리조선소는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보다 더 큰 규모를 갖고 있어 신규 수주 시장을 독식해 나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조선소의 설계 분야와 PM 등 숙련된 기술 인력들이 대거 형리 조선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최근 그리스 선주들의 형리 조선으로의 선박 발주가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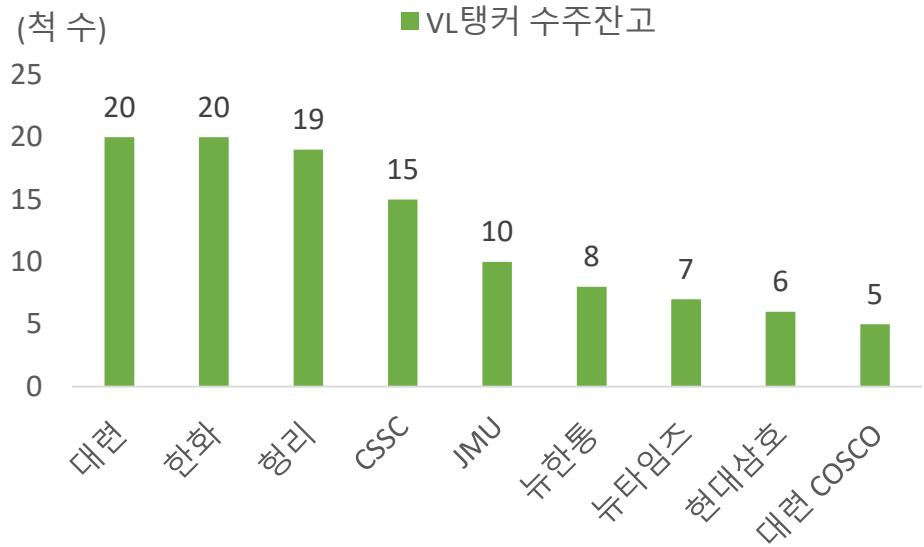
초대형 선박 시장을 잠식하는 형리 조선

지난 10여년간 가동을 멈추었던 형리 조선이 다시 영업을 재개한지 3년만에 가장 많은 2만TEU급 이상 컨테이너선박 수주잔고를 확보했고 VL탱커 수주잔고도 세 번째로 많은 순위로 올라섰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형리 조선에 선박을 주문한 선주들은 MSC, 캐피탈 마리티임, 다이나콤 등의 유력 메이저 선주들이라는 것이다. 한국 조선업이 강조하는 기술적 차별화는 더 이상 메이저 선주들의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형리 조선의 수주잔고에서 검증되고 있다. 선박의 기술적 진화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의 높아진 선가와 낮아진 운임을 고려하면 선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낮은 선가의 선박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수주선가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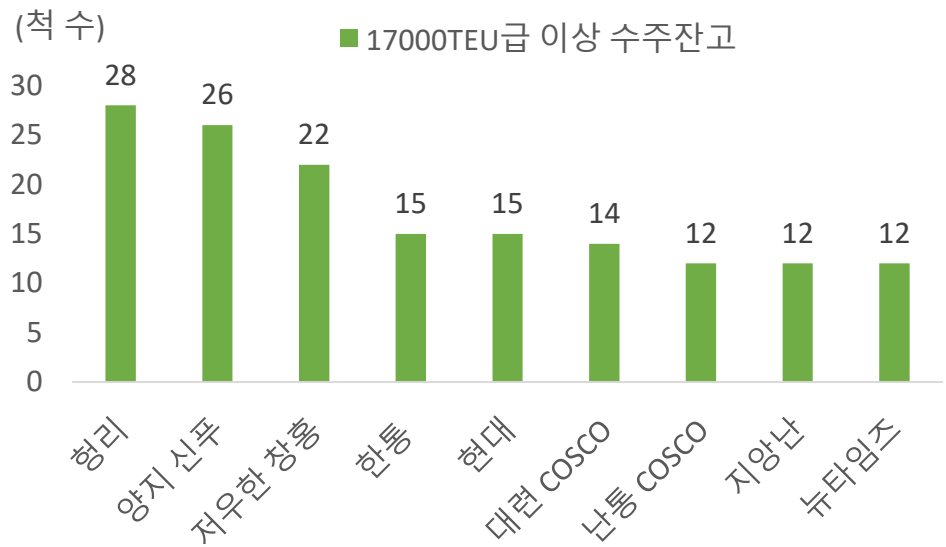
최근 형리 조선의 VL탱커 수주선가는 1.16억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VL탱커 운임이 10만 달러 수준으로 오르고 있음에도 수주계약 선가는 시장가격인 1.26억 달러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VL탱커 시장의 경쟁 조선소의 수가 늘어나면서 수요 공급의 원리로 가격은 낮아지고 있다. 오랫동안 대형 탱커 시장을 떠나 있었던 일본 JMU마저 VL탱커 시장에 진입할 정도로 공급자가 늘면서 선박 가격은 하락 추세가 점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1] VL탱커 수주잔고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그림2]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잔고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은 물론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